

## 예리한 통찰력, 따뜻한 감성 온 마음으로 독도를 그리다

## 시사만화가 안기태 화백

# A H N K I - T A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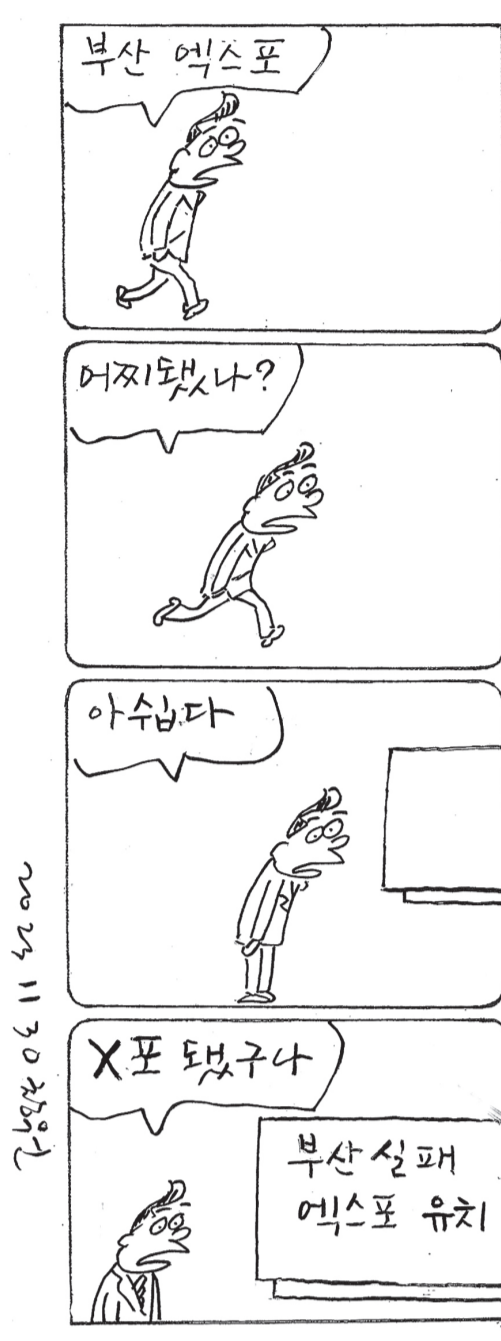
글 박선경 사진 오철민



시사만화계의 전설로 불리며 한평생 시사만화가로 활동 중인 안기태 화백(81). 그가 걸어온 길이 우리 시사만화가 걸어온 길이자 역사라고 할 만큼 한국 시사만화의 산증인이다. 최근에는 한국시사만화가회 회장에 선임되며 자타 공인 우리나라 시사만화계의 수장으로 활약 중인 그를 부산에서 만났다.

### 언제, 어떤 계기로 시사만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셨는지요?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당시 국제신문에 박인성 씨가 <송사리>라는 만화를 연재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광우 편집국장의 도움으로 국제신문에 만화를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980년까지 국제신문에 <피라미>를 주인공으로 시사만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다 1980년 8월 16일 군부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해직되었어요. 그때 해직된 전국 언론인 800여 명 가운데 시사만화가는 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복권하여 1981년 부산일보에 <어리병씨>를 1990년까지 연재하였습니다. 이후 폐간된 국제신문이 복간하여 2003년까지 약 30년간 연재했습니다. 주로 정치·사회 비평하는 만화였습니다. 중간에 겸해서 경북일보(대동일보), 부산 리더스경제신문 등 일간지, 월간지, 주간지 등 30여 군데에 만화를 연재했습니다. 현재는 창원일보, 영남매일, 밀양신문과 월간지 몇 군데 연재 중입니다.



### 인상적인 것은 울릉도·독도를 지킨 안용복 장군을 다룬 초·중학생용 만화 '안용복 장군님, 감사합니다'를 펴내셨는데요. 이 책은 어떻게 내게 되셨나요?

부산 수영구 옛 좌수영 자리에 안용복장군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안용복장군기념관에서 학생과 대중들에게 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만화책을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부산시 자금 도움으로 2013년 책을 펴낸 것입니다. 국내 최초 안용복 장군에 대한 만화책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당시에는 저조차 안용복 장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안용복 장군에 관계하신 분들과 안용복 장군에 대한 책들을 참고로 그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미흡한 만화책이었습니다. 책 페이지 수도 제한적이었지만요. 책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기록에는 그냥 '동래인 안용복', '일개 수병 안용복'밖에 기록이 없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일본에는 안용복 장

군이 허리에 찼던 요패에 적혀 있던 걸 기록한 게 있더군요. 거기에 보면 2차 도일 때 43세로 기록되어 있으니 1654년에 태어나신 거지요. 그때 인연이 되면서 안용복 장군에 대해 공부도 하고 관련 자료를 접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작업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책을 펴내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뜻을 같이하고 마음이 맞는 분이 있으시다면 죽기 전에 제 남은 열정을 다해서 안용복 장군을 제대로 담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보다 앞서 독도와 관련된 만화책에 참여하셨는데요. 어떤 책인가요?

독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셨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육군 대령 진석근 씨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육군 장병들에게도 안용복 장군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셔서 그분이 일본에서 쓴 논문을 토대로 어느 독지가의 자금으로 「민족의 닻 독도」라는 만화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한반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큰 버팀목이 되는 닻의 역할을 한다는 뜻을 담은 제목이었지요. 진석근 대령의 독도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진석근 대령은 1997년 일본 자위대 간부학교 고급과정을 이수했는데, 그때 작성한 졸업논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 양국 주장의 비교·분석'이었어요. 한국군 장교가 일본 자위대 간부학교에 파견돼 교육받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한일 군사 교류의 일환이었던 거죠. 그런데 일본 극우 세력의 본거지라 할 만한 자위대에서 한국군 장교가 독도를 주제로 논문을 펴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 말고도 진 대령이 글을 쓴 「지성인이 알아야 할 독도의 진실」이라는 책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2011년에는 「독도에서 일본인을 쫓아낸 최초의 한국사람 안용복 장군」이라는 만화책도 냈지요.

### 선생님의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안용복 장군은 우리 역사상 큰일을 하신 분인데 저평가 되고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다도 국토로 인정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울릉도 독도를 그때 지켜 낸 덕택으로 동해라는 큰 국토를 우리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을 부산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조차도 예사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4월 18일 안용복 장군 기일에 추모행사를 하는데 부산 시장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역대시장 중 안상영 시장 한 사람뿐이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도 형편없고요. 몇 해 전 안용복 장군의 생각을 찾는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겨우 찾아낸 생각이라는 곳이 바다 한가운데라고 지적하더군요. 더 늦지 않게 이제라도 전문가를 꾸려서 안용복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제대로 업적을 기록하고 후세에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지금 언론에 시사만화를 몇 군데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쯤 일어나서 밥을 먹고 12-13개의 일간지를 읽고 스크랩하는 작업을 합니다. 워낙 오랫동안 해 온 일이라 오전 11시 30분쯤이면 끝이 납니다. 그 후에는 마감할 만화 원고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일어나서부터 마감할 때까지 하루 종일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마감 시간을 놓치는 꿈도 꿀 만큼 마감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즘은 기사 제목만 보면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예전보다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건강이 허락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농담이지만, 거의 무료로 그려주니 잘릴 걱정이 없다는 것도 마음 편한 일입니다. 예전 석간신문을 할 때는 오전 11시 마감이라 거의 새벽녘에 출근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간신문을 하고 있어서 오후 5시 30분에 마감하기 때문에 원고 보내고 친구나 지인들 만나서 술잔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여유도 참으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카툰 그리기에 열중하여 카툰 전시회와 카툰 책을 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시화 작업한 것을 모아 시화집도 낼 계획인데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